



Radar | Korea | 3rd January 2023

한국 데이터센터 시장

새로운 투자 섹터로 부상



Insights & Key takeaways

데이터센터는 데이터센터 위치 및 운영 인프라로 인해 부동산 업계에서 독립된 자산 및 섹터로 떠오르고 있다.

앞으로, 코로케이션 및 클라우드 사업자 증가, 블록체인 기술과 더불어 대용량 데이터, 사물인터넷(IoT)기기 사용 증가로 데이터센터 건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데이터센터 관련 부동산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안정된 운영수익 보장 및 시장확대 전망에 따라,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이 부동산 펀드로 조성되는 등 데이터센터가 독립된 부동산 투자자산으로 여겨질 것으로 보인다.
- 빌딩 임차인으로서 데이터센터의 평균 임차 기간은 10~20년으로 오피스 임차인보다 훨씬 장기계약 일 뿐만 아니라, 장비 투자로 인해 재계약률도 높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부동산 섹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성장에 따라 데이터센터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데이터센터만 투자하는 리츠 등 관련 부동산 사업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도 증가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모 펀드 등 해외 투자자의 한국 데이터 센터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하이퍼스케일 규모의 데이터센터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Investment Strategies

✓ 선임차와 마스터리스를 통한 임차인 확보

데이터센터 임차인은 오피스에 비해 임차인이 한정적이다. 따라서, 데이터센터는 개발 과정 전에 클라우드 사업자와 데이터센터 사용 기업과의 선임대차 계약이나, 마스터리스를 통해 임차인을 확보한 뒤 개발하는 전략이 가장 안정적이다.

✓ 데이터센터 운영사와의 협력강화

재무 투자자들은 데이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 데이터 센터 운용사와의 협력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 금융투자자 입장에서는 전문 오퍼레이터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데이터센터 운영사는 데이터 운영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자산가치 유지를 위해 중요한 파트너이다.

✓ 데이터센터 운영사간의 M&A 증가

궁극적으로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사업자의 성공적인 사업운영이 중요하다. 데이터센터 운영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최근 M&A를 통해 데이터센터 사업자 간의 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규모가 대형화되며, 전용 건물로 구축될수록 에너지 효율적 운영, 물리적 보안(인력 통제) 방재 등 긍정적 효과 창출 가능하다.

✓ ESG 전략 효율화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 활용이 데이터센터의 ESG 활용에 이슈가 되고 있다. 고객들이 원하는 ESG 전략에 맞게 데이터센터 개발을 기획해야만 한다. 전력효율성 (PUE), 녹색프리미엄 전기사용등도 개발시 고려해야 한다.

Summary

데이터센터 시장 투자 및 개발에는 오피스, 리테일, 물류 섹터와 비교하여 투자 및 운영 측면에서 기회와 장점이 존재함과 동시에 더 고려해야 할 과제와 문제들이 있다.

Benefits	Challenges
<p>✓ 한국이 AP 데이터센터 중심지로 부상</p> <p>글로벌 투자자들은 다른 AP 국가 대비 한국의 안정적인 통신인프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 지방자치단체의 유치노력 등의 요인으로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p>	<p>✓ 전기공급 규제로 인한 수도권 건립제한</p> <p>현재 데이터센터 전력수요의 약 7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앞으로 정부는 수도권을 '전력수요밀집지역'으로 지정하고 전기사용 허가나 부지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기가 어려워 질것으로 보인다.</p>
<p>✓ 장기 임차로 인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p> <p>데이터센터의 높은 초기 설립 비용으로 인해 데이터 관련 사업 임차인들은 장기 임대계약을 한다.</p> <p>우량 임차인의 경우 안정적인 운영 현금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 임차인 이탈에 따른 공실 리스크가 적다.</p>	<p>✓ 부지확보 및 민원문제</p> <p>자연재해와 인공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접근성, 인프라, 적용법규 등을 부지선정 기준으로 본다.</p> <p>특히 전력과 수전의 확보여부가 중요하다. 처음에 부지선정부터 임차인과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등의 부지선정 전략에 따른 예정지의 정보를 개발 업자 입장에서는 쉽게 알 수는 없다.</p>
<p>✓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성</p> <p>IT 서비스는 물론 은행, 의료, 교육 등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조직들이 인터넷서비스 확대 및 클라우드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p>	<p>✓ 높은 건축비용</p> <p>데이터센터는 랙당 서버 및 온도와 습도 유지를 위한 공조, 전기, 배관설비 역시 잘 갖춰야하기 때문에 타 대체투자 자산 대비 초기 구축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p>
<p>✓ 다양한 신규 투자자의 활발한 진입</p> <p>통신사가 독점하던 데이터센터 시장에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디벨로퍼, 건설사, 운용사등의 신규 투자자들이 증가하면서 데이터센터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p>	<p>✓ 데이터센터 운영과 영업인력 확보문제</p> <p>운영의 안정성, 운영의 효율화, 유동성을 보장해주는 사업자가 필요하지만, 앞으로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p>
<p>✓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한 투자</p> <p>데이터센터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기존의 오피스, 리테일, 물류대비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좀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투자 확대 및 다변화를 누릴 수 있다.</p>	<p>✓ 데이터 센터 개발 수익률의 평가 어려움</p> <p>데이터 센터 개발은 기존의 상업용 부동산 수익률 계산과 기준이 다르다. 공사비도 평당 공사비가 아닌 메가와트 당으로 계산하는데 메가와트당 100억 정도의 높은 공사비가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IT Load 와 추정 Rack 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p>

데이터센터 시장개요

데이터센터의 정의 및 시장구분

데이터센터 정의

데이터센터는 기업의 방대한 정보저장을 위한 서버, 네트워크 회선 등을 제공하여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통합 및 관리하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24시간 365일 무중단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물리적으로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와 같은 ICT 장비, UPS, 발전기 등의 전력시설, 항온항습기, 냉각탑 등의 공조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센터 구분

데이터 센터는 사용 목적에 따라, 자가용 데이터센터(자체보유)와 코로케이션(임대)사업자로 나눌 수 있다.

KT, LG 유플러스,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 등 이동통신 국내 3사가 약 30개의 데이터 센터를 자체 보유하여 운용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개발에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포털 사업자도 데이터 센터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코로케이션 사업자는 실사용이 아닌 임차인에게 안정적인 서버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글로벌 사업자인 에퀴닉스와 디티털리얼티가 대표적인 코로케이션 사업자이다.

데이터센터 서비스 개요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운영방식에 따라 홀세일(Wholesale)과 리테일(Retail)로 나눌 수 있다.

홀세일 방식은 사업자가 기업에 데이터 센터를 대여, 맞춤 설계하여 운영의 책임은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

리테일 방식은 사업자가 직접 서버를 운영하며 사용자는 서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다.

데이터센터의 구성요소

데이터센터의 구성요소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 **Hosting Area** : ICT 장비(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



Source: Colliers

- **Equipment Area** : 기반시설(UPS/배터리, 항온항습실, 발전기 등)



Source: Colliers

- **Network Operation Center**: 운영 유지 서비스(DCMS : Data Center Management System)



Source: Colliers

데이터센터 국내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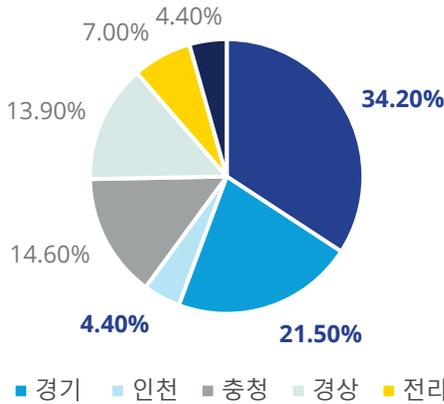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의 데이터센터 수는 177개다. 이중 상업용 62개, 비상업용 115개였다. 이중 6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데이터센터 공급, 2008 – 2023(F)

단위: 수



데이터센터 위치



Source: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미국 시장조사업체 아리존(Arizton)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는 앞으로 연평균 6.7%씩 성장세를 기록하며 2027이면 약 8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021년 39억 달러(약 5조300억원) 대비 50% 이상 상승한 수치다.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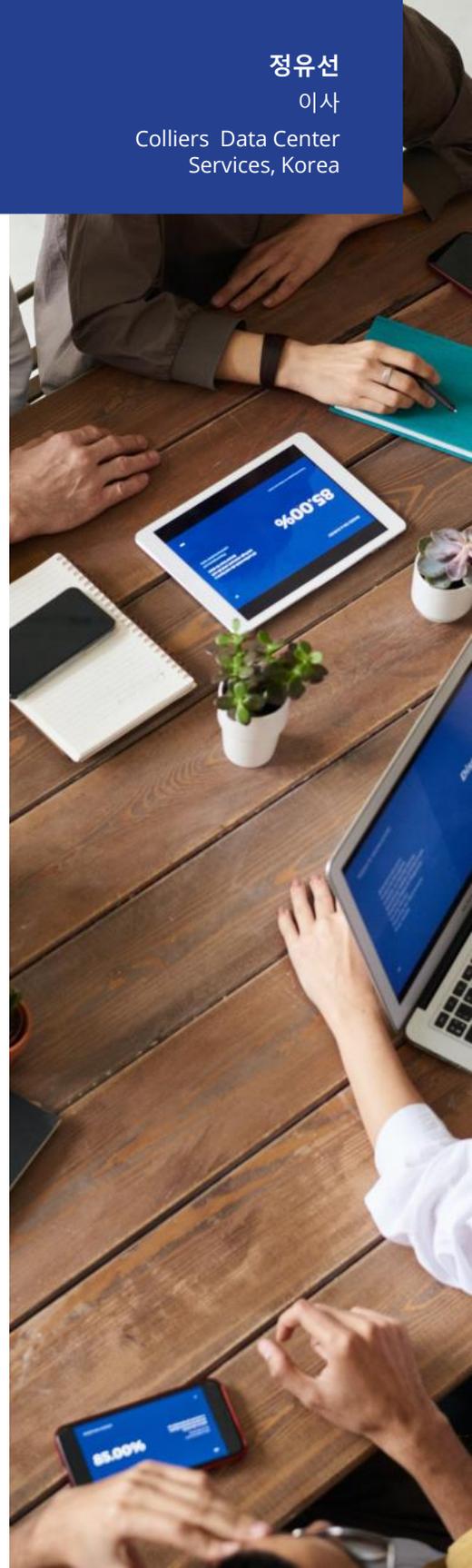


Source: 아리존(Arizton)

“국내외 클라우드 사업자의 한국 진출이 확장되면서 한국의 데이터 센터 시장은 계속적으로 확장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유선
이사

Colliers Data Center
Services, Korea



데이터센터 시장개요

데이터센터의 시장 성장 배경

클라우드 서비스의 폭발적인 성장

최근 데이터센터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 때문이다.

코로나 19 확산이후 IT 인프라 시장이 클라우드 서비스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기업들은 자체 데이터센터 투자를 줄이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자체 서버구축 없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가트너에 따르면, 2021년 클라우드 시장규모는 3,069억달러(약350조원)으로 전세계의 IT관련 지출 중 1/3에 달하는 금액이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고 있다.

카날리시스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60% 이상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점유하고 있다.

네이버, 구글 등 국내·외 IT기업들이 경쟁적으로 클라우드서비스에 가세하면서 저장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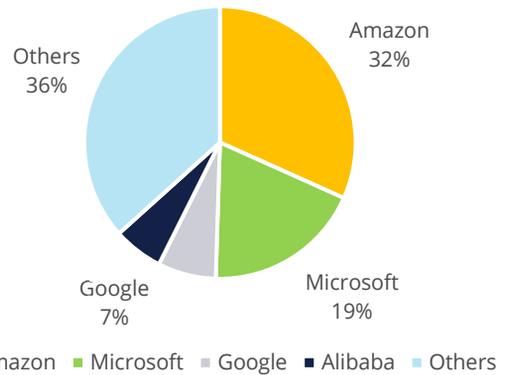
한국에는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인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오라클, 알리바바등이 한국에 진출해 있다.

클라우드 사업의 핵심은 리전과 데이터센터이다. 글로벌 사업자들은 클라우드 게임, IT, 금융등 다양한 국내 시장 공략을 위해, 한국에 리전과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있다.

또한, 금융 클라우드 시장을 놓고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간 경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인터넷 은행등 신규 금융권 수요 뿐만 아니라, 기존 IT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전환하고자 하는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클라우드 IT 인프라 시장규모가 2025년에는 2조2189억원의 매출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2025년까지 평균 15%의 성장률이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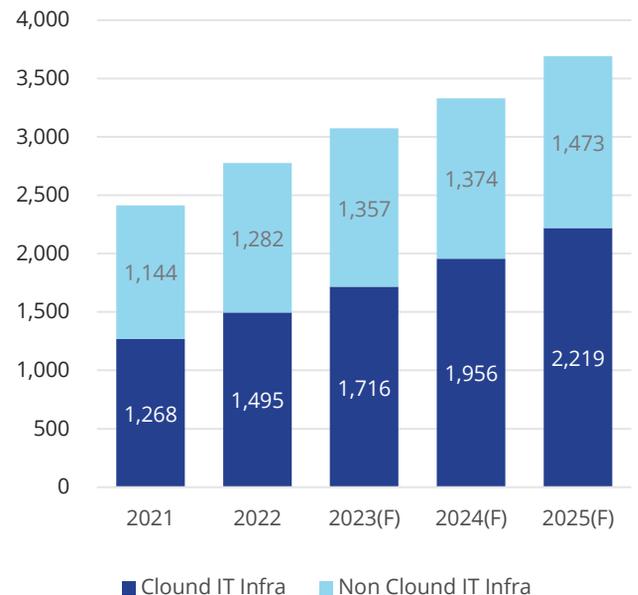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 시장점유



Source(s): Canalsy, Colliers Research

국내 클라우드 시장 전망

단위: 10억원



Source: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한국 데이터센터 주요 사업자

통신사 위주에서 다양한 사업자 등장

국내 통신 사업자가 시장점유

과거 데이터센터 개발은 통신사 등 정보기술(IT) 기업이 주도했다. KT, LG 유플러스,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 브로드밴드 등 이동통신 국내 3사가 약 30개의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시장이 더 성장하면서 그동안 통신사가 주도해온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에 다양한 투자자가 등장하고 있다.

국내 포털 사업자로도 확장 모색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개발에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포털 사업자가 데이터센터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내 운용사 사업확대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에퀴티와 블라인드 펀드 등을 활용하여 투자하고 데이터센터의 설계, 구축, 운영을 위해 통신사업자와의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 데이터센터 사업자 동향

기업명	센터 수	현황
KT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14개 IDC를 보유한 국내 최대 IDC 사업자• KT 클라우드 분사 독립하여 사업 확장 모색
LG U+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현센터, 서초1센터, 서초2센터, 가산센터, 상암센터 등 수도권에 6개 데이터센터를 보유, 지방에 6개를 보유• 평촌 메가센터(10만 여대 서버 운영) 를 향후 데이터센터 거점으로 가져갈 계획
삼성 SDS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세계 17개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 중
LG CNS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 데이터센터를 오픈하고, 상암, 부산, 가산 등에 자체 데이터센터를 가동• LG 그룹의 클라우드 전환 진행
SK 브로드밴드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초, 일산, 분당 등 서울과 수도권에 총 5개 데이터센터를 운영 중• 서울 가산동과 일산 소재 신규 센터를 건립 중
SK C&C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교 데이터센터 추가 구축
카카오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안산에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제2데이터센터를 구축
네이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이버가 강원도 춘천에 자체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운영• 경기도 용인에 데이터센터를 추가로 건립한다는 계획을 발표

국내 운용사 사업 현황

데이터센터 투자를 확보해 리츠 및 부동산 펀드에 편입하려는 국내 자산운용사의 데이터센터 투자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아직까지 국내 운용사와 같은 국내 자본이 데이터센터의 기획, 설계, 컨설팅 운용까지 완벽히 실행한 개발 케이스는 없다.

운용사	현황
이지스자산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 하남시 풍산동 부지에 지상 10층 규모의 대형 데이터센터를 개발 이지스 데이터센터리츠(자리츠)는 254억원을 모집 후 북미 소재 12개 데이터센터와 경기 성남 분당소재 호스트웨이 IDC의 소유권 지분을 취득하여 운영하는 간접투자 리츠
코람코 자산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산디지털단지 내 4만 1213㎡ (1만 2467평) 규모의 데이터센터 구축 총사업비는 4,800억 원이며 2025년 상반기 준공이 목표
퍼시픽자산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투자로 용인 죽전데이터 센터 사업 진행 총사업비는 4,800억 원이며 2025년 상반기 준공이 목표
GF Invest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송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7-2BL을 매입, 연면적 2만4120평 규모 NH투자증권은 본 PF 대출조달
마스톤 투자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DL이앤씨와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내 건설사 사업 현황

대형 건설사들도 시공에서 데이터센터 지분투자 및 디벨로퍼로서 데이터센터 시장 진출을 활발하게 모색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개발을 위한 토지 확보와 각종 규제 등을 처리하여 개발한 뒤, 통신사업자나 인터넷 회사들에 임대를 하는 구조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건설사	현황
GS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액티스, 파빌리온자산운용등과 함께 경기도 안양에 데이터센터 조성중 데이터센터 운영을 전담할 자회사 '디씨브릿지'를 설립
SK 에코플랜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엠티와 협력하여 인천 부평 개발중
HDC 현대산업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NHN와 협력하여 경남 김해시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개발예정
보성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30년까지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400 메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를 건립예정

“데이터 센터가 상업용 부동산의 주요한 섹터로 부상하면서 국내 운용사 및 리츠에서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하는 투자상품 개발을 모색하고 있다.”

조성욱
전무

Colliers Capital Markets and
Investment Services

한국 데이터센터 주요 사업자

해외 데이터센터 운영사 및 투자자

해외 사업자 진출 활발

아마존 및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클라우드 사업자의 한국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통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LG유플러스, LG CNS 등 국내 IT 인프라 업체가 구축해 놓은 데이터센터에 입주하는 임대형식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에퀴닉스, 디지털리얼티 등 세계 데이터센터 임대업 1·2위를 기록하고 있는 양사는 서울 상암동, 경기 김포시 등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데이터센터를 공격적으로 신축하고 있다.

앞으로 공공 클라우드 시장을 선점하려는 외국계 클라우드 사업자 간의 경쟁은 더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데이터센터 사업자 동향

기업명	현황
에퀴닉스 (Equinix)	<ul style="list-style-type: none">2019년 상암동에 데이터센터 건립이후 GIC와 합작법인으로 서울에 2개 추가로 건립예정
디지털 리얼티 (Digital Realty)	<ul style="list-style-type: none">상암동에 지상 10층, 지하 3층에 12만 9000평방 피트 규모로 오픈경기도 김포시에 최대 64 메가와트(MW)의 IT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착공, 지상 7층, 지하 3층에 97만 평방 피트 규모로 2023년 건설 예정2025년까지 3개 추가 건립 예정
디지털 엣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세종텔레콤의 역삼 및 부산의 데이터 센터 매입, 인천 부평 개발 중
Amazon	<ul style="list-style-type: none">KT, SK 브랜드, Lotte I&C 등과 협업하여 한국 클라우드 시장 진출하여 4곳 운영 중
Microsoft	<ul style="list-style-type: none">서울 리전과 부산 리전을 운영부산지역에 추가로 땅을 매입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 계속
IBM	<ul style="list-style-type: none">SK C&C 와 협업하여 판교에 데이터센터 공동 구축, 송도에도 운영
Google	<ul style="list-style-type: none">LG유플러스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그 안에 구글 데이터센터를 운영
오라클 (Oracle)	<ul style="list-style-type: none">서울 및 춘천에 데이터센터 운용향후 광양 내 10만 5천㎡ 규모 부지에 4세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구축예정
알리바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올해 국내 첫 데이터센터 서비스 론칭
SAP코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아마존웹서비스 (AWS)의 데이터센터를 임대하여 클라우드 비즈니스 확대

Source: Colliers

해외 연기금 및 사모펀드 한국시장 진출확대

해외 연기금의 국내 초거대 데이터센터 투자도 활발하다.

사모펀드의 경우, 데이터센터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데이터센터 부지를 직접 인수하는 등의 투자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투자사	현황
싱가포르투자청(G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최대 데이터센터 리츠 업체인 에퀴닉스와 6,300 억원 규모의 합작법인(JV)을 설립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서울에 설립하여 2023년에 공급예정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ul style="list-style-type: none"> 퍼시픽 자산운용과 용인 죽전에 초거대 데이터센터를 건립 2024년 준공을 목표
엑티스(Act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과 안양에 부지를 확보, 8,000억 규모의 데이터센터 개발투자를 진행
스톤피크(Stone Peak)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one Peak가 투자한 싱가포르 기반의 디지털 엣지도 올해 한국에 진출 디지털엣지는 SK에코 플랜트와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상업용 데이터센터를 인천 부평구 지역에 설립할 예정 120MW(메가와트)전력과 1조원(약 10억달러) 이상이 투입될 예정 최근 이퀄베이스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골드만삭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물류센터와 데이터센터에 약 2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
블랙록(BlackRo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데이터센터에 투자해 온 국내자산운용사인 이지스 자산운용의 지분 100%를 인수
거캐피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콩기반 사모펀드인 거캐피탈은 인터넷데이터센터 사업자인 드림마크원 지분을 IMM인베스트먼트로부터 매입
엠펜리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싱가포르계 데이터 센터 개발업체 약 5000억원을 투자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서울 강남에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개발예정

“한국이 데이터센터 시장의 중심지로 떠오르면서 한국 시장을 선점하려는 글로벌 자금의 한국진출이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현진

이사

Colliers Valuation & Advisory Services



데이터 센터 부동산 투자 및 개발 사례

사이트명	위치	면적(sqkm)	투자규모 (십억원)	Buyer/Investor
오금동 데이터 센터	고양	20,454	135	이지스자산운용 & NH 투자증권
IBK 하남 데이터 센터	하남	51,485	NA	이지스자산운용 JV 기업은행
죽전 IDC 사이트	용인	18,955	115	퍼시픽자산운용
KT 가산 데이터 센터	서울	36,517	NA	퍼시픽자산운용
SL2x 데이터 센터	고양	6,600	250	캐피탈랜드투자 OBO GIC JV 에퀴닉스 (REIT)
용인 죽전 퍼시픽써니 데이터센터	용인	99,068	828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 JV 퍼시픽자산운용 JV 신한금융투자

Source(s): Colliers, RCA

“글로벌 대규모
투자자금이 한국에
활발하게
진출하면서
하이퍼스케일
규모의 대형
데이터센터가
개발되고 있다.”

장현주
이사
Colliers Research

데이터 센터 투자사례

이지스자산운용은 NH투자증권과 고양 데이터센터는 삼송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7-2BL에 연면적 2만4120평 규모로 개발하고 있다. 또한, 하남시 풍산동 일대에 2023년 말 완공을 목표로 데이터센터를 신축하고 있다.

KT 클라우드 가산IDC는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 26메가와트(MW) IT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를 지상 10층, 지하 5층 규모로 건설하고 있다.

에퀴닉스와 싱가포르투자청(GIC)은 서울에 두 개의 '엑스스케일(xScale)' 데이터센터를 설립해 운영할 예정이다. SL3x는 SL2x 완공 후 1년 후 개소할 예정이다. 특히 SL2x 재사용 에너지를 활용할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퍼시픽자산운용은 글로벌 연기금인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 Investments), 신한금융투자등의 투자를 유치해 판교에 용인 죽전 퍼시픽써니 데이터센터를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Judy Jang

Director | Research | Korea
+82 2 6325 1918
Judy.Jang@colliers.com

Robert Wilkinson

Managing Director | Korea
+82 2 6325 1901
Robert.Wilkinson@colliers.com

Sungwook Cho

Executive Director | Capital
Markets and Investment Services |
Korea
+82 2 6325 1904
sungwook.cho@colliers.com

Jay Cho

Senior Director | Office &
Industrial Services | Korea
+82 2 6325 1905
Jay.Cho@colliers.com

Jeanne Choi

Director | Valuation & Advisory
Services | Korea
+82 2 6325 1903
Jeanne.Choi@colliers.com

Joan Jeong

Director | Data Center Services
Korea
+82 2 6325 1913
Joan.Jeong@colliers.com



About Colliers

Colliers (NASDAQ, TSX: CIG) is a leading diversified professional services and investment management company. With operations in 62 countries, our 17,000 enterprising professionals work collaboratively to provide expert real estate and investment advice to clients. For more than 27 years, our experienced leadership with significant inside ownership has delivered compound annual investment returns of 20% for shareholders. With annual revenues of \$4.1 billion and more than \$50 billion of assets under management, Colliers maximizes the potential of property and real assets to accelerate the success of our clients, our investors and our people. Learn more at corporate.colliers.com, Twitter [@Colliers](https://twitter.com/Colliers) or LinkedIn.

Legal Disclaimer

This document/email has been prepared by Colliers for advertising and general information only. Colliers makes no guarantees, representations or warranties of any kind, expressed or implied, regarding the informati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warranties of content, accuracy and reliability. Any interested party should undertake their own inquiries as to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Colliers excludes unequivocally all inferred or implied terms, conditions and warranties arising out of this document and excludes all liability for loss and damages arising there from. This publication is the copyrighted property of Colliers and /or its licensor(s). © 2022. All rights reserved. This communication is not intended to cause or induce breach of an existing listing agreement.